

담낭암으로 오인된 원인미상의 혈담낭염 1예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 방사선학교실*

허정욱 · 허규찬 · 손수호 · 황재석 · 안성훈 · 박승국 · 김 흥*

담도계내로의 출혈은 질환이나 외상으로 혈관과 담도계간에 비정상 연결이 있을 때 생긴다. 혈담낭염은 외상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담낭내에 혈액이 있거나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인으로서는 자발성, 염증성질환, 담낭결석, 종양, 혈관질환, 혈액질환 등이 있으며 자발성 원인이 가장 많으며 빈도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증상은 심와부 혹은 우상복부 종괴가 갑자기 관찰되고 복통, 백혈구증가증, 발열 등의 급성 담낭염의 증상과 유사하다. 진단은 복부초음파검사, 복부CT 혹은 MRI로 할 수 있으며 치료는 담낭절제술이 원칙이나 서서히 소실되는 혈종은 비수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저자들은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수술후 혈담낭염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38세 여자가 입원 1주전부터 갑작스런 우상복부 동통이 있어 개인의원에서 복부초음파 및 CT촬영 후 담낭암의 추정진단하에 전원되었다. 이학적 검사상 우상복부에 경한 압통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말초혈액검사, 소변검사, 생화학적 검사상 정상소견이었다. 복부초음파상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담낭암 등의 추정진단과 복부 MRI상 담낭혈종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 진단하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여 확진 후 양호한 경과로 퇴원하였다.

만성 담낭염에 동반된 간질(Fasciola hepatica)의 담낭감염 1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성우*, 조재현, 권혁만, 금민수, 최정일, 탁원영, 권영오, 김성국, 최용환, 정준모

간질(肝棘, Fasciola hepatica)은 소, 사슴, 양, 토끼 및 그 외의 초식성 포유류의 기생충으로서 전세계의 낙농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인체감염은 수초 등의 잎줄기와 피낭유충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서 감염된다. 증상은 감염강도와 감염기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두통, 오한, 발열, 두드러기, 찌르는 듯한 흉골하 통증 및 등과 어깨로 뻗치는 우상복부 통증이 첫 증상이며, 진행되면 간비대, 소화불량, 설사 및 빈혈이 생긴다.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호산구 증가로 의심할 수 있으며 대변이나 담즙에서 충란을 찾아 증명할 수 있으나 수술이나 대변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는 Bithionol과 Praziquantel이 사용된다. 이 기생충은 주로 간내담도의 감염을 일으키며 드물게 담관폐쇄를 일으켜 세례적으로 몇 종류가 보고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드문 질환으로 1예를 치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여자 51세로 2주간의 우상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병력상 두통이나 오한, 발열은 없었으나 소화불량과 오심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비교적 건강해 보였고, 복부 이학적 검사상 우상복부에 경미한 압통을 호소하였으며 간과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다.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5,770/\text{mm}^3$, 혈색소 12.5g/dl , 헤마토크리트 40.1% , 혈소판 $570,000/\text{mm}^3$, 호산구가 9.1% 로 $525/\text{mm}^3$ 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AST 27IU/L , ALT 35IU/L , 총단백 7.4g/dl , 알부민 4.4g/dl , 알칼리인산효소 312IU/L , 총빌리루빈 0.5mg/dl 으로 측정되었다. 간초음파검사에서 담석과 담낭의 확장 및 비후가 보였으며 간과 비장의 종대는 없었다. 임상적으로 급성 담낭염의 의심되어 담낭절제를 위해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술중 육안적 소견상 담낭벽은 비후되어 있고 점막의 피사가 보였으며 간과 복벽에 심한 유착이 동반되어 있었다. 총담관의 확장과 비후소견은 없었으나 간내담도의 경미한 확장이 보였다. 담낭절제술후 육안적소견상 담낭내 0.5cm 크기의 black-pigmented stone들이 두 개 보였다. 현미경소견상 담낭벽에 만성 염증세포, 특히 호산구의 침윤이 심했으며 점막세포는 위축되어 있었다. 또한 많은 수의 간질(Fasciola hepatica)과 그 충란이 관찰되어 만성 담낭염에 동반된 간질의 감염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퇴원 후 외래에서 Bithionol($1800\text{mg} \times 6 \text{ doses}$)로 치료하였으며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